

Session 5 Stage #2: Understanding God's Love for His People

05 제 2 단계: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I. REVIEW: THERE ARE 5 STAGES TO GROWING IN LOVE

복습: 사랑 안에 자라가기 위한 5 단계

- A. The foundational premise in this teaching series is that *God loves us with the same intensity that God loves God* (Jn. 15:9; 17:23). The measure of God's love for us is the way God loves within the Trinity. This quality of love is foundational to life in God's kingdom. It is the ultimate reality in the kingdom. Jesus called us to abide in love—to continually live in and stay *focused* on it. 이 강의 시리즈의 기본적 전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동일한 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요 15:9; 17:23)는 것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척도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안에서 사랑하는 방식이다. 사랑의 이 질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삶에 대한 기초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궁극적인 실재이다. 예수님은 우리로 사랑 안에 거하도록 초청 하셨는데 그 부르심은 사랑안에 지속적으로 살아가며 사랑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⁹“As the Father loved Me, I also have loved you; abide in My love” (Jn. 15:9)

⁹“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 15:9)

²³“...that the world may know that You [the Father]...loved them as You have loved Me.” (Jn. 17:23)

²³“... 아버지께서 ...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요 17:23)

- B. The love burning in God's heart has at least 5 expressions that are deeply interrelated. Each of these expressions represent the 5 stages of how a believer can grow in love. We are to seek to understand and walk in all 5 stages simultaneously since they are revealed and imparted to us by the Spirit. 하나님의 마음 안에 불타고 있는 사랑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는 적어도 5 가지 표현들을 가지고 있다. 이 각각의 표현들은 신자들이 사랑 안에서 어떻게 자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5 가지 단계를 나타낸다. 이 5 가지 단계들은 성령님에 의해 우리에게 계시되며(revealed) 나누어지고(imparted)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이해하며 동시에 이 단계들 안에 걸어가기를 추구해야 한다.

1. **God's love for God:** Each person in the Trinity intensely loves the others with all their heart.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삼위일체 안에 각 위는 자신들의 온 마음을 다해 다른 이들을 강렬하게 사랑하신다.
2. **God's love for His people:** He loves His people with all of His heart, mind, and strength.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자신의 온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해 사랑하신다.
3. **Our love for God:** God's very own love is imparted to His people by the Spirit (Rom. 5:5).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하나님 자신의 사랑이 성령님에 의해 그분의 백성들에게 부어 진다. (롬 5:5)
4. **Our love for ourselves:** We love ourselves in God's love and for God's sake. **우리 자신을 향한 우리의 사랑:**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우리 자신을 사랑한다.

5. **Our love for others:** We love others in the overflow of experiencing God's love (1 Jn. 4:19).
 다른 이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흘러 넘치는 가운데 다른 이들을 사랑한다 (요일 4:19).

- C. The command to love God with all our heart does not begin with us. It is one expression of the ultimate reality of the kingdom that existed long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namely God's heart that burned with perfect love within the fellowship of the three persons of the Trinity.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우리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 이 명령은 창세 전 오래 전부터 존재했던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 실재의 표현인데, 다시 말해 삼위일체의 삼위 간의 교제 안에 있는 완전한 사랑으로 불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다.

II. STAGE #1 GOD'S LOVE FOR GOD

제 1 단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 A. Stage 1 is to receive increased understanding of the perfect love that is found in the relationships within the Trinity. The Son loves the Father (Jn. 14:31), and the Father loves the Son (Jn. 3:35; 5:20; 15:9; 17:23). Their love is the foundation of all the love experienced in the kingdom.
 제 1 단계는 삼위일체 안에 있는 관계에서 발견되는 완전한 사랑에 대한 증가되는 이해를 받는 것이다.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요 14:31),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신다 (요 3:35; 5:20; 15:9; 17:23). 이 분들의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경험하는 모든 사랑의 기초이다.
- B. We best understand God's love as we consider the glorious truth of the Trinity. The way that God loves within the Trinity is the way He loves us—it is the very same love. He never suspends one attribute for even one moment. He always loves in fullness—He never loves us with just a part of His love, because that would be to deny His own character. He will never diminish or grow in love, because His love is infinite in measure and eternal in duration.
 우리는 삼위일체의 이 영광스런 진리를 상고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내에서 사랑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 그것은 동일한 사랑이다. 하나님은 한순간이라도 한 속성을 결코 보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충만함 가운데 사랑하신다 - 그분은 절대로 부분적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데, 그 이유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자신의 속성을 부인하시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랑 안에 결코 감소 하거나 자라지 않으실 것인데, 그 이유는 그분의 사랑은 측량에 있어서 무한 하시며 기간에 있어서 영원 하시기 때문이다.
- C. In John 13-17, Jesus taught on the loving union of the three persons in the Trinity. The union in the Godhead reveals the nature, quality, and intensity of His love and relationships. Their relationships are the *model* and *source* of perfect love. They give us a picture of what perfect love is and of how God relates to God, how He relates to us, and how we relate to Him and others.
 요한복음 13-17 장에서, 예수님은 삼위일체 안에 삼위의 사랑하는 연합에 대해 가르치셨다. 신성 안에서의 연합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들의 본질, 질 그리고 강도를 계시하고 있다. 이분들의 관계는 완전한 사랑의 모델이요 근원이다. 삼위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어떻게 관계 하시는 지, 하나님이 우리와는 어떻게 관계하시는 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이들과 어떻게 관계하는 지에 대한 그림을 제공한다.

- D. Each person of the Trinity enjoys and fully engages in the relationship with the others. Jesus has joy and enthusiasm in His love for the Father. He is moved both in loving the Father and in being loved by the Father. His love is never mechanical. He is not bored in His relationship with the Father. 삼위일체의 한 분 한 분은 다른 분들과의 관계를 즐기시며 완전히 참여 하신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향한 자신의 사랑에 대해 기쁨과 열정을 가지고 계신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하시며, 아버지께 의해 사랑 받는 것 안에서 감동되신다. 그분의 사랑은 결코 기계적이지 않다. 그분은 아버지와와의 관계에서 지루해 하지 않는다.

III. STAGE #2 GOD'S LOVE FOR HIS PEOPLE

제 2 단계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 A. Stage 2 is to receive increased understanding of the love that God has for us (Eph. 1:17; 3:18-19). Jesus declared that He loves the redeemed in the same way or intensity that His Father loves Him (Jn. 15:9). He said that the Father also loves the redeemed with this same intensity (Jn. 17:23). Father, Son, and Spirit love the redeemed with all their heart, mind, soul, and strength. 제 2 단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 가지고 계신 사랑에 대해 증가된 이해를 받는 것이다 (엡 1:17; 3:18-19).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시는 동일한 강도와 방식으로 구속 받은 자들을 사랑한다고 선포 하셨다 (요 15:9). 주님은 말씀 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 동일한 강도로 구속 받은 자들을 사랑하신다고 하셨다 (요 17:23).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분들의 온 마음과 생각과 혼과 힘을 다해 구속 받은 자들을 사랑하신다.

⁹“*As the Father loved Me, I also have loved you; abide in My love.*” (Jn. 15:9)

⁹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 15:9)

²³ *...that the world may know that You have...loved them as You have loved Me.* (Jn. 17:23)

²³ “... 아버지께서 ...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요 17:23)

- B. The ultimate statement about our worth is that Jesus has the same measure of affection towards us that His Father has towards Him (Jn. 15:9; 17:23). This is both the simplest and deepest truth in the kingdom. It is both the introduction and the pinnacle of the kingdom. This truth gives every believer the right to view themselves as one of “God’s favorites.”

우리의 가치에 대한 궁극적인 선언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계신 동일한 사랑의 정도로(크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다 (요 15:9; 17:23).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진리이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서론이며 절정이다. 이 진리는 모든 믿는 자에게 스스로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라고 볼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다.

- C. This is a most dynamic truth for which we should often say, “Thank You,” and ask the Spirit to reveal more of *God’s love for us* and to impart more *love for God in us*.

이것은 가장 역동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성령님 감사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성령님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계시해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더 부어주시기를 구해야만 한다.

IV. THE LORD ALWAYS LOVES IN FULLNESS

주님은 항상 충만하게 사랑하신다

- A. The Lord always loves in fullness. He would deny His character if He ever loved less than in fullness. He never suspends any of His attributes—not even 1%. He will never diminish or grow in love, because His love is infinite in measure and eternal in duration. He never changes (Heb. 13:8). 주님은 항상 충만하게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충만함 보다 덜 사랑하신다면 자신의 속성을 부인하시는 것이 될 것이다. 주님은 자신의 속성의 어떤 것도 1%라도 보류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사랑에 있어서 결코 감소하거나 더 자라지도 않으실 것인데, 그 이유는 그분의 사랑이 측량에 있어서 무한하시며 기간에 있어서 영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신다(히 13:8).
1. The Lord is always 100% true to who He is. Never for one moment is God less than 100% loving or 100% wise or righteous, etc. God cannot ever be less than who He is. If He were, He would deny Himself—even if He was 1% deficient in one attribute.
주님은 당신이 어떤 분이신 지에 대해 항상 100% 진실하시다. 하나님은 한 순간이라도 100% 사랑하시는 일이나, 100% 지혜로우시거나, 100% 의로우신 일에 결코 덜 하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보다 모자라실 수가 없다. 만약 하나님께서 한 속성에 있어서 1%라도 모자라신다면 주님은 스스로를 부인하시는 것이 된다.
 2. Because He fully acts as God in all of His attributes all of the time, it follows that the Father loves us in the way that He loves Jesus because He only loves in fullness.
하나님은 항상 그분의 모든 속성들 안에서 하나님으로 완전히 행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완전하게 사랑하는 것과 같이 우리를 또한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 B. He does not withhold His love when a sincere believer stumbles or struggles with sin. Our spiritual immaturity does not affect the way He feels about us. He never loves us less in this age than He will love us in the age to come when we live in the perfection of the resurrection state.
진실한 신자가 넘어지거나 또는 죄로 갈등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멈추지 않는다. 우리의 영적 미성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 느끼고 계신 방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우리가 부활의 상태의 완전함 가운데 살아가는 내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이 세대에서 우리를 결코 덜 사랑하지 않으신다.
- C. When God wants to empower us to love Him, He reveals Himself as One who loves us. We will only love God to the measure that we see that He loves us. It is the core truth that transforms us. We will not love God more by “trying harder” to love but by “seeing more” of His love.
하나님이 우리로 자신을 사랑하도록 능력 주시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핵심 진리이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함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봄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다.

¹⁹*We love Him because [we understand that] He first loved us. (1 Jn. 4:19)*

¹⁹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우리가 이해함으로] (요일 4:19)

- D. Thus we are to be students of how the Father loves the Son. We are called to *behold*, or understand, the quality of the Father's love for us (1 Jn. 3:1). To *behold*, *abide in* or to *keep ourselves* in God's loves includes studying how the Father loves Jesus, so that we gain insight into how God loves us. Pray, "*Holy Spirit, let me see and feel what You see and feel about the Father's love for me.*"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사랑하셨는지에 대해 공부하는 학생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그 질을 바라보고, 혹은 이해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요일 3:1). **바라보고, 사랑 안에 거하며 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공부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렇게 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는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라; "성령님,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당신께서 보고 계시고 느끼는 것을 나도 보고 느끼게 해 주세요"

¹***Behold [focus on] what manner [quality] of love the Father has bestowed on us... (1 Jn. 3:1)***

¹ 보라 [집중하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질]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 (요일 3:1)

²¹***Keep yourselves in the love of God, looking for the mercy of our Lord Jesus... (Jude 21)***

²¹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유 21)

V. JESUS DEEPLY DESIRES THAT HIS PEOPLE BE NEAR HIM FOREVER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영원히 자신과 가까이 있기를 깊이 갈망하고 계신다

- A. Jesus is zealous for His people to be very close to Him forever (Jn. 14:3; 17:24; Rev. 3:21).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영원히 자신과 가까이 있기를 질투하신다 (요 14:3; 17:24; 계 3:21).

²⁴***"Father, I desire that they also whom You gave Me may be with Me where I am." (Jn. 17:24)***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 원하옵나이다 [갈망합니다; 뉴 킹 제임스 번역]" (요 17:24)

³***"I will come again and receive you to Myself; that where I am, there you may be also." (Jn. 14:3)***

³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 14:3)

²¹***"To him who overcomes I will grant to sit with Me on My throne..." (Rev. 3:21)***

²¹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 (계 3:21)

- B. We are so dear to Him. The truth of our worth and identity is found only in Him. The revelation of *His worth to us* is magnified in seeing *our worth to Him* in His grace. He also magnifies His greatness through releasing His glory in and through His people. We are vessels of His glory, "trophy of grace" even, that express how loving, kind, wise, and powerful He is (Eph. 2:7).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하다.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에 대한 진리는 오로지 하나님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치에 대한 계시는 그분의 은혜 안에서 그분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 지에 대한 우리의 가치를 바라봄으로 극대화 된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안에서 그리고 그 백성들을 통하여 자신의 영광을 풀어 냄으로 자신의 위대함을 또한 극대화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들이며 또한 "은혜의 트로피들"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친절 하시며, 지혜로우시며, 그리고 능력 있는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존재이다 (엡 2:7)

⁶***He...made us sit together in the heavenly places in Christ Jesus, ⁷that in the ages to come He might show the exceeding riches of His grace in His kindness toward us in Christ Jesus.***

(Eph. 2:6-7)

⁶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⁷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 [친절; 새 킹 제임스 번역본] 으로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엡 2:6-7)

1. He is exalted in openly manifesting the great quality of His love, power, and wisdom. In seeing who we are to Him, we gain insight into His majesty. Who would love us this much? What kind of Man loves so deeply—even undeserving ones such as we are?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 능력과 지혜의 위대한 질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심으로 높임을 받으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누구인가를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는 그분의 장엄함에 대한 통찰을 갖게 된다. 누가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겠는가? 어떤 사람이 우리처럼 자격 없는 자들을 이토록 깊이 사랑하는가?
 2. We see only the mere edges of how He feels about us and who we are to Him (Job 26:14). As beauty is in the eyes of the beholder, so great love reveals the nature of the one who loves so deeply. Our exaltation in His grace is just one of many expressions of His supreme greatness that is infinitely superior to all others.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 어떻게 느끼시며 우리가 그분께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가장자리 만을 보고 있다 (욥 26:14). 아름다움이 바라보는 사람의 눈에 있는 것처럼, 위대한 사랑은 깊이 사랑하는 자의 성품을 계시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높아진 것은 그분의 뛰어난 위대하심에 많은 표현들 가운데 하나인데, 그분의 위대하심은 모든 다른 것들 보다 무한히 뛰어난 것이다.
- C. The Most High went *so low* in becoming man and bearing our sin to bring us *so near* to Him. The measure of His love is seen in the drastic measures He took in redeeming us to be with Him. Jesus' glory includes many facets of His greatness—He who is *so high* (transcendence) went *so low* (immanence) in love and humility to bring us *so near* (to rule with Him forever) because we are *so dear* to Him (Bride/sons). He went so low because of His desire for partnership—including us in ruling the earth with Him forever (Rev. 2:26-27; 3:21; 5:10; 20:4-6; 22:5; cf. Mt. 19:28; 20:21-23; 25:23; Lk. 19:17-19; 22:29-30; 1 Cor. 6:2-3; 2 Tim. 2:12; Rom. 8:17-18; cf. Dan. 7:22). 지극히 높으신 분이 사람이 되심으로 아주 낮은 자리로 오셨고, 우리를 자신에게 가까이 데려오기 위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분의 사랑의 크기는 그분이 우리를 그분과 함께 있기 위해 구속하신 엄청난 정도에서 보여진다. 예수님의 영광은 그분의 위대하심의 많은 면모들을 포함한다 – 지극히 높으신 (초월적인) 분께서 사랑과 겸손으로 지극히 낮은(내재하는) 자리로 내려 오셔서 우리를 지극히 가까운(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리로 데려 오셨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께 너무나 소중한 존재 (신부/ 아들들)이기 때문이다. 동역에 대한 주님의 갈망 때문에 주님은 지극히 낮은 자리로 내려 오셨다. 동역은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이 땅을 통치하는 것을 포함한다 (계 2:26-27; 3:21; 5:10; 20:4-6; 비교 문구 마 19:28; 20:21-23; 25:23; 비교 문구 눅 19:17-19; 22:29-30; 고전 6:2-3; 딤후 2:12; 롬 8:17-18; 비교 문구 단 7:22).
- D. We matter so much to Him! He wants us to have “ownership” with Him in His unfolding plan of redemption. We are not disassociated spectators who will merely sit back to watch Jesus rule. We should be awestruck with Him and filled with gratitude in seeing how far His love goes. 우리는 예수님께 너무나 소중하다! 주님은 자신의 구속의 계획을 펼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소유권”을 갖기 원하신다. 우리는 뒤에 앉아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것을 바라보기만 하는 분리된 구경꾼들이 아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멀리 가는지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으로 인해 놀라고 감사함으로 가득찰 것이다.

²¹*For all things are yours:* ²²*whether...the world or life or death, or things present or things to come—all are yours.* ²³*And you are Christ's, and Christ is God's. (1 Cor. 3:21-23)*

²¹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²²...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²³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고전 3:21-23)

- E. David was overwhelmed at seeing the dignity and value of the redeemed in God's sight (Ps. 8:4-6). This was surely a component of David's passion for God. This understanding awakened David's heart in love for God. We marvel at seeing what His love is capable of and how far it will go. 다윗은 하나님의 눈에 구속 받은 자들의 존귀함과 가치를 봄으로 압도 당했다 (시 8:4-6, 시 16:3) 이것이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한 부분이었음이 확실하다. 이러한 이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가운데 다윗의 마음을 일깨웠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량과 그 사랑이 얼마나 멀리 가는지를 볼 때 경탄하게 된다.

⁴*What is man that You are mindful of him...⁶You have made him to have dominion over the works of Your hands; You have put all things under his feet... (Ps. 8:4-6)*

⁴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⁶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시 8:4-6)

VI. THE TRANSFORMING JOY OF AFFECTION-BASED OBEDIENCE (JN. 15:9-11)

애정에 기초한 순종의 변화되는 기쁨 (요 15:9-11)

- A. Our joy is anchored in the intensity of how the Father loves the Son and how the Son loves us. Jesus spoke of His love to empower joy in the life of His people (Jn. 15:11). Understanding Jesus' love helps to free us from the dominion of the inferior pleasures of sin and allows us to experience the superior pleasure of His love. As we experience more of God's love, we feel joy—a *deep sense of well-being with confidence*—even in the face of disappointment, temptation, and persecution.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며, 아들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 지에 대한 강도에 기초를 두고 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의 삶 가운데 기쁨에 힘을 실어주는 자신의 사랑에 대해 말씀하셨다 (요 15:11).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로 죄의 저급한 쾌락들의 지배에서 자유롭게 되도록 돕고,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의 최상의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만든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할 수록, 우리는 실망, 유혹과 핍박을 직면할 때 조차도 기쁨, 즉 **확신을 가진 깊은 평안**을 느낀다.

⁹*“As the Father loved Me, I also have loved you; abide in My love...”¹¹These things I have spoken to you, that...your joy may be full. (Jn. 15:9-11)*

9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¹¹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함이니라” (요 15:9-11)

- B. This joy empowered the disciples to walk in victory after the devastating experiences that occurred soon after Jesus spoke these words. They suffered the shocking disappointment of Jesus' sudden death, the deep shame of betraying Him, and the threat of death and imprisonment from the political authorities, along with their normal temptations in life. 이 기쁨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직후에 일어났던 충격적인 경험들 후에, 제자들로 하여금 승리 가운데 걸어가도록 능력을 북돋아 주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갑작스런 죽음에 충격적 실망, 주님을 배반했다는 깊은 수치와 죽음의 위협 그리고 정치적 권위자들로부터의 투옥과 삶에 있어서 정상적인 유혹들로 인해 고통을 당했다.

C. God's people are motivated to obey Jesus in different ways: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께 순종하도록 동기를 부여 받는다.

1. **Affection-based obedience:** obedience that flows from experiencing Jesus' affection for us and giving it back to Him. It is the strongest, deepest, and most consistent obedience. Why? Because a person moved by strong love will endure anything for love.
애정에 기초한 순종: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애정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으로 부터 흘러 나오는 순종. 이것이 가장 강하고, 깊으며, 가장 지속적인 순종이다. 왜냐하면 강한 사랑에 감동한 사람은 사랑을 위해 어떠한 것도 인내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Duty-based obedience:** our commitment to obedience even if we do not feel God's presence. God's Word requires that we obey God without feeling inspired to do so.
의무에 기초한 순종: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지라도 순종하기로 헌신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하라는 감동의 느낌 없이도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요구한다.
3. **Fear-based obedience:** obedience motivated by the fear of negative consequences. It is biblical to appeal to shame and fear to motivate people. Scripture actually does have many *do's and don'ts* such as do not commit adultery, steal, slander, etc. We know that God will use His rod because He loves us too much to leave us in compromise (Heb. 12:5-11).
두려움에 기초한 순종: 부정적 결과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동기를 받는 순종.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수치와 두려움에 호소하는 것은 성경적이다. 성경은 실제로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와 같은 많은 **하라**와 **하지 말라**는 명령들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므로, 막대기를 사용해서 타협 가운데 우리를 내 버려두지 않으신다 (히 12:5-11).

VII. WE WILL NEVER EXHAUST THE LOVE OF GOD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절대로 지치지 않을 것이다

- A. We will never exhaust the vast ocean of God's love but will forever experience new aspects of it.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거대한 바다에 절대로 지치지 않을 것이며 사랑의 새로운 면들을 영원히 경험할 것이다.

¹⁸*May be able to comprehend...what is the width and length and depth and height—¹⁹to know the love of Christ which passes knowledge; that you may be filled with all the fullness of God. (Eph. 3:18-19)*

¹⁸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¹⁹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엡 3:18-19)

- B. God's love is like a vast ocean that is big enough to reach all people and to cover our sin forever. The **width** of love speaks of embracing each type of person, personality, and nationality. The **length** of love speaks of reaching far beyond our failure in this life and continuing forever. The **depth** of love points to how far Jesus descended and what it costs Him to save us (Phil. 2:8). The **height** of love speaks of the measure of exaltation that we receive in His grace (Rev. 3:21). 하나님의 사랑은 거대한 바다와 같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가며 우리의 죄를 영원히 덮을 수 있을 만큼 크다. 사랑의 **넓이**는 각기 다른 사람, 성품과 국적의 유형을 포용하는 것을 말한다. 사랑의 **길이**는 이생에서 우리의 실패를 훨씬 뛰어 넘어 미치고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말한다. 사랑의 **깊이**는 예수님이 얼마나 멀리 내려 오실 수 있는가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지불하셨는지를 말한다 (빌 2:8). 사랑의 **높이**는 우리가 그분의 은혜 안에서 받고 있는 높여짐의 정도를 말한다 (계 3:21)
- C. **Passes knowledge:** It requires the aid of the Spirit to understand God's love, and it will take all of eternity to comprehend its immensity. His love will never be fully calculated or measured.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데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랑의 방대함을 깨닫으려면 영원의 전부가 필요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완전히 계산되거나 측량할 수 없을 것이다.
- D. **Fullness of God:** Walking in our full destiny is connected to our growing in the truth of His love. 하나님의 충만하심: 우리의 완전한 데스티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 가운데 자라가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